

1. 전반적특징

△ 경제부문에 대해서 지난해보다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 신년사 전문의 약32%가 경제관련
- 성과부분의 28.5% (2013년:16.6%)
- 과업부분(방도이후는 제외)의 56.1%(2013년'45.7%)

△ 당창건 70돐이 되는 2015년을 넘두에 두고있다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입니다.》

2015년에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투쟁의 첫해

※ 《번영기》란 전성기의 다음 단계, 그이상의 단계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2013.12.8))

△ 경제과업부분과업인 농업, 건설, 과학기술이 앞장서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의 모범으로

2.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

※ 경제부문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큰 성과를 거둠.

《지난해에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커다란 전진》이란 표현

1)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생산적양양,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 튼튼히 특히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

농업부문을 성과로 언급한것은 《공동사설》(1995년) 이 발표된 이래 처음

수령님의 신년사를 포함하여도 1985년에 1,000만톤고지 점령에 대한 평가, 1990년 농촌테제발표 25돐즈음한 성과로 농촌경리제도 공고히,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이란 평가이래 24년만

2013년도 생산목표는 650~700만톤이라고 추정됨

빠른 기일내에 800만t달성하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음(2013.9사회과학원)

※ 2013년도 곡물생산량은?

《2013년FAO/WFP보고》(2013.11.28)에 의하면 2013/14년도 곡물생산량은 598만톤(도정후 503만톤, 국영농장포함안됨)

※사회과학원에 의하면 2012년도 생산량은 도정후 529.8만톤, 전년비 약 16만톤증가(2013. 9)→
《2012FAO/WFP보고》(2012.11발표)에서의 도정후 490만톤(국영농장포함안됨)과 약40만톤의 차이가 있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로 계산하는 기간이 다르기때문

그러나 파악되는 생산량에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음→국영농장생산몫 등

그를 감안할 때 2013년도 실지생산량은 더 많을수 있음.

증산의 요인은

첫째, 90년대 말부터 진행해온 농업혁명의 성과

둘째, 2012년부터 실시된 농업부문에서의 경제관개개선조치=분조관리제의 철저한 실시 및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 등의 생활력이 나타난 결과

- 건설자들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놓음.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세포등판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회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2013.12.8))

(참고)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창조와 건설의 최전성기》(2013.12.13)

민주조선<새로운 투쟁과 위훈의 길로 힘차게 달려온 우리 로동계급>(2013.12.28)

3. 올해과업

1) 과업

①농업, 건설, 과학기술부문

②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

③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④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

2) 특징과 내용

△특징

① 농업, 건설, 과학기술을 첫째과제로 가져온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을 실감하는 부문, 성과의 담보가 확고한 부문, 그를 밀고나가는데서 동력으로 되는 부문에 주력한다는 의미.

② 선행부문과업의 순서문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묶은 이유

《특히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큰 힘을 넣으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쌍기둥으로 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2013.8.25))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이 첫째과업으로 나온 이유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주체공업에서 성과를 거둔다

△주목점

-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

핵동력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계획의 가능성

- 식생활에서 농업, 축산, 과수에 이어서 수산이 새로 등장